

배아줄기세포 관련기술 일본 수출

한양대 김계성 교수팀, 마이크로RNA 실시권 Mitsubishi Rayon에게

국내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발굴한 배아줄기세포 관련기술이 일본에 수출됐다.

한양대 의대 김계성 교수팀은 2003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팀과 함께 새롭게 발굴한 마이크로RNA(miRNA) 유전자에 대한 국제특허 실시권을 일본 Mitsubishi Rayon에게 판매기로 계약을 했다고 2월8일 발표했다.

일본에 수출된 특허기술은 과학기술부 세포융융연구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관련 국제 특허는 김계성 교수와 차바이오텍 명의로 출원했다.

계약에 따라 김계성 교수와 차바이오텍은 우선 2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앞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5%를 매년 추가로 받는다.

마이크로RNA는 세포 기능을 제어하는 조절물질의 하나로 1993년 처음 발견됐을 당시 선충(線蟲)에서만 일어나는 특이 생명현상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모든 동물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생명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자들은 마이크로RNA의 기능이 밝혀지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지 않는 수많은 유전체가 왜 존재하고, 인간의 유전자수가 왜 3만-4만개에 불과한지 등 생명현상에 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계성 교수팀이 배아줄기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마이크로RNA에 Mitsubishi가 개발한 마이크로RNA 유전자 칩 시스템을 결합하면 생체 내 다양한 세포의 마이크로RNA 발현 양상 및 기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8>